불교서적의 모든 것! 여시아문
국내최대 인터넷불교서점 여시아문닷컴
www.yosiamun.com
Tel:02)737-0695 Fax:02)737-0696

"詩作도 생사의 업 짓는 일이지요"



◇수유리 북한산 자락, 공초 오상순 시인의 묘소를 찾은 이원섭 시인.

큰 나무와 큰 사람은 닮은 점이 있다.
넓은 그늘과 덕화로 뭇 사람들의
심신에 평안을 준다는 점에서 그렇고,
너무 가까이에 있거나 멀리 있어도
그 존재의 실체를 느낄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원섭(78) 시인도 그렇다.
그 또한 우리들(적어도 종교라는 울타리에
갇혀있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혹은 너무 멀리 있었다.
시인으로서의 이원섭은 우리에게 멀리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애송시 목록에 오르는
작품도 없거니와 오랜 세월 동안
시업(詩業)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해 한용운 스님이 편찬한,
흔히 축스판 팔만대장경으로 불리는
〈불교대전〉의 역주자로, 〈깨침의 미학〉의
지은이로, 〈선시〉 번역자로서의
이원섭은 늘 우리 곁에 있었다.



◇시인이기 이전에 道人으로서의 공초 오상순을 존경한 이원섭 시인은 오상순 시인의 상징인 담배를 올리는 일로 향 사르기를 대신했다.

산문밖의 시詩

이원섭 시인

'부처님 세계' 접하며 경전 · 선시 번역 심혈

40년만에 두번째 시집 '내가 뱉은 가래침' 펴내

선기 넘치는 언어로 세상 풍자와 비틀기



그런 그가 시집을 냈다. 첫 시집 〈향미사(響尾蛇)〉 이후 40년만의 일이다. 두 가지 의문이 대립쌍을 이루며 고개를 든다. 무엇이 인생 절반에 가까운 세월 동안 시를 외면하게 했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다시 시를 쓰게 했을까?

"불법의 세계에 빠져들면서부터는 시상(詩想)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도 흘려보내고 말았어요. 시를 쓴다는 것은 감정의 물결을 따르는 일이잖아요. 정감의 세계를 좇는 한 수행을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시작(詩作)이라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생사의 업을 짓는 일이지요.

그런데 왜 새삼스레 시집을 냈느냐, 어차피 버린 인생인데 그냥 한 번 써 보자, 한 것이 이번 시집이 됐어요."

과연 그냥 써 본 걸까, 속된 말로,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봐버린 노 시인의 말이라 해서 그것을 시작(詩作) 이유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말아도 될까.

우선 시집의 제목부터가 상당히 도발적이다. '내가 뱉은 가래침', 만약 젊은 시인이 한 말이었다면 치기와 오만과 만용이라는 혐의가 씌워질 법도 하다. 그렇다면 노 시인이라고 해서 아무런 유보없이 겸손이나 달관으로 받아들이고 말 일인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원섭 시인은 결코 '나이 대접'에 기대지 않으니까.

"가래침이라는 게 뭡니까. 침전된 불순물이 토해져 올라온 게 아닙니까. 불교의 입장에서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명 · 망상'이겠지요. 이렇게 보니까, 내 가래침을 계기로 산도 해도 달도 열리더라는 얘깁니다. 물론 스스로 내 시를 '가래침'이라 한 데는 이 세상을 부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모든 문제의 근본은 '나'에 있다는 것이지요. 〈유마경〉에 이르기를 '마음청정 국토청정'이라 했던가요."

시인의 가래침은 이렇다.

아구의 규칙을 손대서
투수는 치기 좋게 던져야 하고
타자는 공을 못쳐야 하며,
홈런이라도 나면
그만큼 상대 팀에 점수가 가산되는,
이런 따위로 고쳐보면 어떨까.

또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을 쉿어넴이 교육,
무엇 하나 앎이 없는 이가 대학자,
알거지가 재벌,
정치가나 공무원은 무능해야 하고,
회가나 시인의 작품은 졸렬해야만 하는,
이런 따위로 고쳐,
온 세상을 어리석음으로 채워보면 어떨까.

다소의 문제야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야 좋은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을 것이다.
—우민(愚民)정책 (전문)

제목만큼이나 역설적인 시다. 그리고 그 역설에는 전도된 가치가 지배하는 현실을 조롱하는 전복적 힘이 넘친다. 하지만 그의 시를 읽고 나면, 시의 표면을 이루는 역설과 냉소와 비틀기가 주는 가학적 통쾌감보다는 인간적 따스함이 더 짙게 느껴진다. '그렇지, 참으로 선한 인간이라면 저래야지' 하는 생각이 대뇌를 거치지 않고 곧장 마음 속에 자리를 잡는 것이다.

이원섭의 시는 언어 배후의 진실을 들어올리는 힘이 있다. 그리고 그 힘은 지난 40년 동안 시 '창작' 대신 불교 경전과 선(禪)의 세계에서 진리를 '찾고' 그것을 빼어난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져진 공력에서 나온다.

"해설 수준의 선시(禪詩) 번역이 많아요. 그래선 안 되죠. 우리 말로도 시다워야지요. 경전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경전다운 장중함과 독송하기에 알맞은 리듬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말 경전이 단순히 한문 경전을 읽는 참고서 구실을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한글경전으로서 독립할 수 있어요."

비록 지난 40년간 시를 쓰지는 않았지만, 모국어를 갈고 다듬는 데 있어서 이원섭 시인은 이 땅의 빛나는 시인이었음이 분명하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원섭 선생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했다는 공초(空超) 오상순 시인의 묘소가 있는 북한산을 찾았다.

"공초 선생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이셨어요. 문학적 업적 따위는 부차적인 거예요. 결혼은 몇몬이거니와 무엇하나 소유하지 않은 진정한 출가인이었어요."

그랬다. 묘비를 대신한 오상순의 시비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호흡 위에
보금자리 친
오, 호흡 위에
보금자리 친
나의 혼

어쩌면 이원섭 시인은 '언어의 한계'를 너무 일찍 봐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인은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말 뒤에 숨지도 않았고, 문자로서 문자를 넘어서야 하는 시인의 사명을 방기하지도 않았다.

언어를 부정하는 언어의 연금술사. 그가 이원섭 시인이다.

글=윤제학 기자 yunh@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老시인의 삶결과 붓결

이원섭 시인은 1924년 강원도 철원에서 났다. 혜화전문학교(동국대 전신) 불교학과를 나온 후 경신고등학교, 마산고등학교, 숙명여고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다.

1948년 〈예술조선〉 제2호에 '기산부(箕山婦)'가, 〈문예〉 제2호에 시 3편이 서정주 시인에게 추천됨으로써 문단에 나왔다.

전국불교신도회 부회장과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한국현대시인협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첫시집 〈향미사(1953)〉 이후로는 불교경전 공부와 번역에 심혈을 기울였고, 선(禪)의 세계를 간결하고도 정교한 언어로 풀어낸 〈깨침의 미학〉과 같은 책은 이 시대의 고전으로 정평이 나 있다. 1980년에는 만해 스님의 〈불교대전〉을 역주하고, 1982년에는 법화경을 우리말로 옮기는 등 한글경전의 한 모범을 세웠다. 이밖에도 〈선시(禪詩)〉 〈당시(唐詩)〉 〈노자〉 〈장자〉 〈논어〉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현재는 〈법화현의〉를 번역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 나온 시집 '내가 뱉은 가래침(문학아카데미)'은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1부는 20대에 금강산을 탐승한 기억을 되살려 쓴 시편으로, 금강이 금강이 되는 본질을 찾고 있다. 2부는 시로써 화두를 타파하는 시도를 한다. 3부는 시집의 표제를 이루는 '가래침(?)'에 해당하는 시편들인데, 현실공간 속의 우리네 삶과 세계에 대한 시인의 성찰이 담겨있다. 특히 3부의 시편들은 첫시집의 주제와도 맞닿아 있는데, 첫시집이 6·25가 보여준 인간의 추함을 그렸다면 이 시편들은 속도와 경쟁만을 부추기는 오늘의 세태를 선기 넘치는 언어로 풍자하고 있다.



◇이원섭 시인이 詩業을 놓은 동안 견져올린 '말의 탑' 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익모초탕



조선조 13대 임금, 명종의 등극은 어머니 문정 왕후(1501~1565)의 특별한 집념의 소산이었다. 아버지 중종(1488~1544)은 반정공신들에 의해 왕위에 오른 인물로, 그의 왕권은 나약했다. 중종은 처복(妻福)마저 없어서 첫째부인 단경 왕후 신씨는 폐비되고, 둘째 부인 장경 왕후는 원자만을 남겨놓고 일찍 세상을 떠났다. 반정공신 심정 · 남곤 등이 후궁 경빈 박 씨의 소생인 복성군을 왕세자로 책봉하여 왕권을 전횡할 음모를 꾸미는 가운데, 원자를 세자로 추대하려는 윤임과 김안로 세력이 반정공신들과 대치하는 정국에서 셋째 부인 문정 왕후가 딸만을 셋 낳았으니 근심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다.

문정 왕후로서는 대군을 낳는 길만이 살아남는 길이었으므로, 좋다는 약은 모두 써보았으나 효험을 보지 못했다. 원자를 생산케 해달라고 여러 명찰에 기도를 불이도록 지시한 가운데, 문정 왕후는 보우 스님(1515~1565)과 함께 경기도 봉선사에서 기도를 올리고 돌아가는 길에 소낙비를 만났다. 비 피할 곳을 찾던 중에 초가집 한 채를 발견했다. 집 주인은 가난한 선비로 슬하에 아들만 아홉을 둔 사람이었다. 그는 왕비 일행을 대접하면서 "딸 하나 없는 게 아쉽다"고 혼잣말을 했다. 이 소리를 들은 문정 왕후는 그에게 아들만 내리 낳은 특별한 섭생법이 있는가를 물었다.

왕비의 마음을 알아챈 선비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담벼락에서 자생하는 익모초의 즙을 만들어 먹고, 겨울에는 차로 만들어 먹은 것이 비법일지 모른다면서, 점구통에서 갓 짤은 익모초 즙을 왕비에게 올렸다.

어쨌든 이를 계기로, 문정왕후는 회임을 했고, 그때 낳은 분이 명종이 되는 경원대군이었다. 익모초는 아이를 오랫동안 갖지 못하거나, 아들을 원할 때 자궁 내의 조건을 개선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해준다.

■ 약선식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모색)의 저자

부인병-여름철 더위 효과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익모초 40g, 검정콩 80g, 흑설탕 또는 조청 20g

요리법
① 검정콩과 익모초를 잘게 썰어 충분히 끓인다.
② 한번 끓고 나면 조청을 넣고 다시 끓여서 1/2정도의 분량이 될 때까지 졸인다.

효능 부인병, 신경통, 여름철 더위 먹은 데 좋다.